

분단시대 동·서독인의 삶 이야기

— 「동서포럼」 전기 대화 —

이 삼 열,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사무총장

1945년 2차 대전 후, 우리나라처럼 분단되었던 독일은 1990년 분단시대 45년을 청산하고 통일을 이루었다. 정치적·경제적 통일은 평화적으로 쉽게 달성했지만, 동·서독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통합은 통일 후 2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 많은 장벽과 문제를 안고 있어 쉽지가 않다.

이념과 체제가 다른 동·서독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독일인들의 차별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여기에 소개하는 「동서포럼」의 경험은 독특한 방법으로 심리적 갈등과 증오심을 해소하며 사회통합을 시도하는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열 명의 동·서독인들이 2박 3일간 합숙하며 진솔하게 삶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이해심과 통합 의지를 넓히는 전기 대화(삶의 이야기 나눔)의 모델은 분단의 장벽과 적대감정이 두터운 한반도의 남북한 사람들에게도 여러 가지 교훈과 방안을 제시해 준다.

독일의 사민당 정권에서 동방정책을 맡아 일했고,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베이징 사무소 소장을 역임한 괴델리츠 씨가 동독 드레스덴 근교에 있는 부모의 농장 저택을 개조해 만든 센터에서 동·서독인의 화해와 통합을 위해 시도한 전기 대화 운동을 방문기 형태로 소개한다.

2013년 11월

필자는 2010년 6월부터 3개월 동안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 Friedrich-Ebert-Stiftung)의 초청으로 독일 베를린에 머물며, 통일 후 독일인들의 생각과 삶의 문제를 살펴보고, 분단시대의 고통과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고 있는지를 알아볼 기회를 가졌다. 여러 기관과 인물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중, 슈미트-괴델리츠(Axel Schmidt-Gödelitz, 이하 괴델리츠)라고 하는 분이 바로 통일 후 동·서독인들의 갈등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이들이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괴델리츠 씨에게 급히 연락해 「동서포럼」 베를린 사무소에서 만나 대략의 내용을 들었다. 동독 드레스덴 근처에 위치한 고향 농장에서 주말에 동독인 5명과 서독인 5명이 함께 만나 2박 3일간 합숙하며, 분단시대와 통일시대 후 자신들의 삶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의 오해와 갈등을 풀어나가는 운동을 벌써 오랫동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이 겪을 갈등과 불안, 난제들을 생각해보면, 동·서독이 통일 후 겪은 문제와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남한과 북한의 통일이 언제 가능할지 모르지만,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이 겪을 갈등과 불안, 난제들을 생각해보면, 동·서독이 통일 후 겪은 문제와 갈등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점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언젠가는 겪게 될 통일 후 남북한 사람들 사이의 심리적, 사회적 갈등과 통합의 문제를 떠올려보면서, 독일의 경험을 알아보는 것은 꽤 의미 있고,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괴델리츠 씨의 경험과 그가 통일 이후 20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동서포럼(Ost-West-Forum)의 활동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가진 국내 여러 기관이나 운동단체, 학자, 전문가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에 도움을 청해, 2011년 8월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역사화해 NGO 국제대회” 때 그를 주제 강사로 초빙하여 독일의 동서포럼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 후 국내에서 동서포럼 모델을 따라 우선 탈북자들과의 대화모임을 한국에서도 추진해보자는 의견들이 모여져서, 대화문화아카데미와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으로 소수의 남한사람과 탈북자들이 참여하는 1박 2일 동안의 ‘삶의 이야기 나누기’ 대화 모임을 두 세 차례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한국의 오늘과 독일의 현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어, 「동서포럼」 대화 모임의 방법을 그대로 수용하는 데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다. 우선 독일은 통일이 된 후라 자유롭게 분단시대 동독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만, 한국은 아직 분단시대에 탈북자들이 북에 있는 친척들을 생각하면서 북한에서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없었다. 그리고 탈북자들의 삶은 아직 너무나 힘들고 불안한 피난민 처지이기 때문에, 남한 주민들과의 평등한 대화나 소통이 어려웠다.

그렇지만 탈북자들과의 대화는 나름대로 큰 의미와 성과가 있었다.

탈북자들의 아픈 경험과 북한에서의 삶의 고통, 문제점들을 직접 들을 수 있었고, 또 남한에 와서 느끼는 열등의식과 소외감을 이해하며 동족 의식과 인간애를 느끼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소득과 감동이었다. 서로 다른 곳, 다른 환경,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았던 남북한 사람들이 신뢰할 만한 분위기에서 만나 진솔한 대화를 통해 마음속에 쌓였던 감정과 원한, 단견들을 쏟아 놓을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카타르시스 효과는 충분했다.

그 뒤로 필자는 괴텔리츠 센터에서 열리는 동·서독인들의 대화 모임에 직접 참가해 모임의 진행과 분위기를 현장에서 체험해 보고 싶었다. 마침 유럽에 가는 기회가 있어, 2012년 10월 한 주의 주말,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2박 3일 동안 괴텔리츠 농장에 머물며 동독인 3인과 서독인 3인, 그리고 괴텔리츠 씨와 필자, 이렇게 8명이 참가한 ‘삶의 이야기 나눔(전기 대화)’ 모임에 참여해 보았다. 물론 괴텔리츠 씨가 직접 사회를 보며 진행하였다.

【 서독으로 쫓겨 간 동독 지주의 아들 】

여기서 필자는 괴텔리츠 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통일 후 동독 고향에 돌아온 그가 왜 동서포럼을 조직해 동·서독인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기 대화 운동(Biographie Dialog)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알 수 있었다.

1942년 동독 드레스덴 근처 농촌 마을인 괴텔리츠(Gödelitz)에서 태어난 악셀 슈미트-괴텔리츠 씨는 2차 대전이 끝난 1945년 소련군이 구 동독 땅에 진주하여 공산화를 추진하자, 어머니, 4남매와 함께 서독으로 이주하였다. 괴텔리츠 마을에 큰 농장과 저택을 소유한 대지주였던 그의 가족은 소련 점령군의 명령으로 100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전부 몰수당했고, 빈손으로 프랑스군이 주둔하고 있던 서남독 지역으로 넘어와 피난민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전쟁에 나간 부친은 1947년이 되어서야 패전군으로 서독에 돌아왔지만, 일평생 가꾸온 농장과 전 재산을 잃은 슬픔에 공산당을 증오하며 통일의 날을 기다리다 1973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피난민 반공 가정에서 자란 괴텔리츠 씨는 분단의 아픔과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여 베를린대학에서 정치학과 경제학을 전공하였고, 1969년에 대학을 졸업하였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고향 구동독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데올로기 문제를 연구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대학생 시절 이미 공산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현실에서 배태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고향 구동독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데올로기 문제를 연구해야만 했고, 그 과정에서 그는 대학생 시절 이미 공산주의는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사회 역사적 현실에서 배태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진보적 학생운동이 성행했던 1968년 대학생이었던 괴텔리츠 씨는 8년간이나 생활공동체 코뮤네(Commune)에서 생활했다. 남학생 5명, 여학생 3명이 한 집에 기거하며, 돈 있는 사람은 한 달에 500 마르크도 내고, 돈이 없는 사람은 1 마르크만 내는 사회주의적 집단생활의 실습장에서 그는 오랜 시간을 견뎠다.

자연히 사회민주당(SPD)에 가입한 그는 당의 추천을 받아 모로코의 한 연구소에서 3년간 머무르며 모로코 야당에 관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 그 후 1970년대 초 사회민주당이 집권하여 빌리 브란트(Willy Brandt)가 수상이 되었을 때, 수상실 간부였던 귄터 가우스(Günter Gaus)가 그를 동방정책(Ostpolitik)의 실무자로 임명하였다.

이때부터 괴텔리츠 씨는 동서독 화해와 관계개선 정책을 맡은 동방정책의 실무자로서 활약했고, 사회민주당 정부의 신임을 받아 1976년부터 1982년까지 5년 동안 동베를린에 설치된 서독 상주대표부에서 일하는 행운을 얻었다. 고향이 가까운 동베를린에 머물며 공산주의 동독의 현실과 문제를 면밀하게 관찰하며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동서독의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간첩이나 정치범들을 풀어내 교환하는 일도 담당하였다.

1982년부터 1986년까지 4년 동안 카이로에 있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이집트 사무소 소장으로, 그 후 에버트 재단 베이징 사무소 소장으로 일했다. 그 사이에도 그는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가입하여 정치범 석방이나 인권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하였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자, 통행이 자유로워져 고향 땅 동독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일 이후, 분단 이전에 구동독에 살던 사람은 공산화 이후 몰수당한 집이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그래서 그는 가족들과 함께 고향으로 이주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자,
통행이 자유로워져 고향 땅 동독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통일 이후,
분단 이전에 구동독에 살던 사람은
공산화 이후 몰수당한 집이나 재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 동독 고향으로 돌아와 세운 동서포럼 】

그러나 통일 직후 동독으로 돌아온 그의 가족들에게 고향 땅은 더 이상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었다. 구동독(DDR) 정권이 붕괴되고 서독(BRD)으로 흡수 통일된 동독에는 서독인들이 점령군처럼 몰려와 모든 자리를 차지했고, 정치인이나 고위 공무원, 경찰, 정보부, 교수, 법관, 사장 등 구동독의 지도층 인사들은 상당수 해고되어 실업자가 되었다. 공장은 문을 닫고, 실업자들은 늘어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이 증가하면서, 통일의 기쁨과 환호는 잠시뿐이었고, 구동독 사람들에게는 절망과 불안의 어두운 세월이 엄습해 왔다. 공산당 간부와 정보부원

(Stasi)으로 인권을 탄압했던 사람들은 모두 체포되었고, 마르크스주의를 강의하던 교수나 학자들은 모두 쫓겨나 청소부나 택시운전사로 전락했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기도 하였다.

특히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토지와 농장, 재산을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공산 치하에서 고생하며 살았던 구동독인들은 완전히 권리를 잃고 소외되었다. 1945년 분단 이전의 소유주에게 토지와 부동산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법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살아오고, 또 갈고 닦았던 건물과 토지를 서독인들에게 빼앗기는 동독인들이 수없이 많이 생겨났다. 1992년과 1993년은 마치 전쟁 직후와 같았다고 한다. 동독인들은 점령당한 패배자처럼 온갖 수모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점령군처럼 들어와 좋은 자리, 좋은 집을 차지하고 사는 서독인들은 승리자처럼 군림하며 권력과 부, 명예를 누리면서 오만과 방정을 떨고 있었다.

괴델리츠 씨는 3살 때 떠난 고향에 50살이 되어 돌아왔지만, 이러한 모순과 갈등, 절망에 쌓인 동족을 바라보면서 건디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의 가족들은 분단 이전의 옛 땅과 재산을 되찾았으나, 100헥타르가 넘는 토지는 무상이 아니라 유상으로만 되찾을 수 있다는 국가신탁청(Treuhandanstalt)의 법 때문에, 많은 돈을 내고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오늘날 시가보다는 훨씬 싼 금액이지만, 당시 77세였던 어머니와 다른 형제들은 모두 재산을 털어 옛 고향의 토지와 농장, 저택을 다시 사들였다. 무상으로 빼앗겼던 재산을, 통일 후 값을 지불하고서야 되찾을 수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고향에 돌아와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썼다. 철저히 검소한 생활을 하며 농장 재건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 또한 아직도 낯익은 이웃들이 조금 남아있는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친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호의를 보였다.

처음엔 그의 이웃들이 미묘한 감정으로 그의 가족을 바라보았다고 한다. 대지주나 부농을 융커(Junker)라고 부르던 구동독 사람들은, 공산 치하에서 몰아낸 융커들이 돌아오면 다시 자본주의 세상이 되며, 그때 농민들은 거지같은 생활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귀가 아프도록 들으며 지냈기 때문이다. 소련이 점령하기 전 그의 가족이 소유했던 토지는 100헥타르가 넘는 대토지였기 때문에, 몰수된 이후에도 소작농들에게 분배되지 않고 국가 소유의 토지로 남아있었다. 다행히 개인에게 분할된 토지가 아니었으므로, 누구를 몰아내거나 빼앗는 식으로 재산을 다시 찾는 일은 피할 수 있었다.

그의 가족들은 의논 끝에 다시 찾은 재산을 동독인의 발전과 동·서독인들 사이의 화해와 평화로운 재결합을 위해 쓰기로 결심하고, 농장과 저택을 개조해 수십 명이 기거하며 쉬고,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동네 이웃사람들을 고용하여 집을 고치고, 가족들이 모

그의 가족들은 고향에 돌아와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기 위해 애썼다. 철저히 검소한 생활을 하며 농장 재건을 위해 땀 흘리며 열심히 일했다. 또한 아직도 낯익은 이웃들이 조금 남아있는 마을에서 동네 사람들과 친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며 호의를 보였다.

두 건축과 인테리어 작업에 참여해서 30여 명이 합숙할 수 있는 방들과 150여 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강당 등이 있는, 괴델리츠 센터(Gut Gödelitz)를 세웠다.

이미 1994년부터 괴델리츠 씨는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베를린 사무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동·서독인들을 초대해 스스로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임을 이끌어 나가기 시작하였다. 급작스러웠던 통일 이후 다시 만났으나 여전히 낯설고, 서로에 대한 오해와 갈등이 쌓여 있는 동독인과 서독인들이 함께 살기 위해서는, 다른 체제와 사회 구조에서 살았던 과거와 그 성향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해야만 사회통합과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러 학자와 정치인들도 그의 의견에 공감했다. 같은 독일 사람들이라 통일이 되면 쉽게 통합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만 실체는 그렇지 못했고, 동족이라 경제적, 행정 관리상의 문제만 해결되면 함께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 믿었지만 통일 후의 심리적 갈등은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또한 당시 동독인들의 70%가 자신들이 이등국민으로 전락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통계는 90년대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크게 변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는 서독인들의 오만한 자세와 동독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부당한 말과 정책 결정, 편견과 오해에 쌓인 대립 감정에 그 원인이 있었다.

마음 속 깊이 쌓인 편견과 오해, 적개심과 복수심, 원한 관계, 그리고 동·서독인들의 갈등과 소외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괴델리츠 씨가 떠올렸던 해결책은, 자신들의 과거를 털어내는 대화 모임이었다. 편견과 오해의 근원은 분단된 채 서로의 사정과 생활을 알지 못했던 무지와 자기편만이 옳았다는 독선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치유하려는 대화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차례 시도한 끝에 그는 괴델리츠 전기 대화(삶의 이야기 나눔)라는 모델을 만들어 냈다.

이는 동·서독인 각 5명씩, 비슷한 비율의 남녀, 다양한 직업과 나이, 정치적 성향의 사람들을 10명을 모아 주말인 금요일 저녁부터 2박 3일 동안 자신들이 살아온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모임이다. 30분씩 발표하고 다음 30분은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한 사람씩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나가니, 약 이틀이라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많은 이야기가 오간다. 결국, 자신이 살아온 경험 속에는 사회, 정치, 사상, 가치관의 문제들이 다 녹아 있었고, 이러한 대화를 통해 동·서독인이 살았던 사회의 구조와 환경, 문제점들이 밝혀지면서 서로에 대해 가졌던 여러 가지 편견과 오해가 해소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음 속 깊이 쌓인 편견과 오해, 적개심과 복수심, 원한 관계, 그리고 동·서독인들의 갈등과 소외감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괴델리츠 씨가 떠올렸던 해결책은, 자신들의 과거를 털어내는 대화 모임이었다.

【 전기 대화를 통한 편견 해소와 화해 】

동·서독인 열 사람이 모여 지난 삶의 이야기를 고백하는 전기 대화 모임은 1994년부터 2012년 까지 18년 동안 매달 한 번씩 지속적으로 열렸고, 여기에 참가했던 사람은 이제 2000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한 번 다녀간 사람이 이 대화 모임을 통해 얻은 깨달음과 감동, 카타르시스, 그리고 눈물과 감격, 포옹의 경험들은 입과 입을 통해 전해져 참가 신청자들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 때는 다 수용할 수 없어 대기자가 150여 명에 이른 적도 있었다.

괴텔리츠 씨는 이제 이 대화 모임의 조직과 진행 사회를 맡아 하는 전문 대화 운동가가 되었다. 이 대화 모임의 핵심은 사회자에게 있다. 사회자는 동·서독 참가자들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하고, 편견 없이 또 숨김 없이 편안하게 진행되도록 만들어 가는 조각가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는 대화의 신청자 중에서 각기 직업과 나이, 성격이 다른 다섯 명씩을 골라 대화의 상대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많은 고심과 노력을 한다. 동질적인 상대보다는 이질적이며 갈등의 요소가 있는 상대자들을 모아서 전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 보게 하는 것이 이 전기 대화의 묘미며 백미이다.

편견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대화의 경험을 수없이 했다고 전하는 괴텔리츠 씨는, 사생활 문제이므로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익명을 전제로 몇 가지 체험들을 전해 주었다.

한 번은 참가자 가운데 크게 대립하는 두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은 과거 동독에서 귀족적인 대지주로 살다가 공산화로 인해 재산을 몰수당하고 서독으로 피난 갔다가 통일 후 1992년에 동독 고향으로 돌아와, 토지와 재산을 다시 찾고 부유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구동독에서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추방당한 과거의 불행과 고통을 털어놓았다. 공산당이라면 씹어 먹을 듯이 이를 갈고 미워했다고 고백했다.

다른 한 사람은 동독의 인민군 장성 출신인데, 가난한 소작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당한 착취와 뼈저린 가난 때문에 무시당하고, 모멸감을 느꼈던 끔찍한 과거 어린 시절을 털어놓으며 자본가들이 미웠고, 특히 큰 공장에서 농부들을 부려 먹고 착취하는 대지주들이 제일 미웠다고 고백했다. 그는 청년기에 들어 공산당에 가입했으며, 철저하게 자본주의자들을 몰아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구동독에서는 자본가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죽이기도 하고, 추방했는데, 통일 후 그들이 다시 돌아와 뽐서리친다고 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처음 듣는 순간, 저 사람과 주말 이틀을 지낸다는 것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 자리를 뜨려고 마음먹고 기회를

편견이 사라지고, 갈등이 해소되는 대화의 경험을 수없이 했다고 전하는 괴텔리츠 씨는, 사생활 문제이므로 다 공개할 수 없지만, 익명을 전제로 몇 가지 체험들을 전해 주었다.

옛 공산당원이면서 인민군 장성이었던 다른 사람은,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에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하관계이며, 변경시킬 수 없는 신의 질서라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들어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옛보고 있었다. 그러나 적을 앞에 두고 먼저 피한다는 것은 실패라고 생각해 상대방이 먼저 떠나기만 기다리며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그러는 사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되었고, 귀족 지주는 흑사당 농민들과 그 가족들이 왜 대지주들을 미워하고 공산당이 되었는지를 조금씩 듣고 이해하게 되었다. 공산당원들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어렸을 때는 불의한 환경에서도 적응하며 지냈지만, 커가면서 사회구조적 모순과 불의를 깨닫게 되자 점차 잘못된 사회구조를 바꾸어야겠다고 결심하며 행동하다가 공산주의자들이 되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옛 공산당원이면서 인민군 장성이었던 다른 사람은, 귀족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세상에 빈부격차가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하관계이며, 변경시킬 수 없는 신의 질서라고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들어 그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복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사회구조를 합리적으로 고쳐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다. 대화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 다 자기들의 생각과 삶이 너무나 극단적인 보수적 가치에 지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이 서로 친해지지는 않았지만 막무가내였던 편견의 벽은 한 주말 대화를 통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일생 믿고, 따르고,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믿음과 신념이 의문에 빠지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허위와 맹신으로 드러날 때, 겪게 되는 혼란과 아픔은 쓰리고 괴로운 일이다. 그러나 이런 당혹스러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과 치유가 생긴다는 것을 자주 경험했다고 한다.

이런 충격과 감동과 치유의 경험들은 수없이 많다. 구동독 시절 정보부 장교였던 사람이 그가 왜 정보부원이 되었는지를 고백했다. 자기 아버지는 공산주의자였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나치 시절 게슈타포에 체포되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끌려가 가스실 독살로 죽임을 당했다. 그는 어머니의 비참한 죽음을 커서 알게 되었다. 나치족들을 미워하게 되었고, 당시 나치 관료들이 서독에서 활개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개하며 어머니를 죽인 이들 잔당을 색출하여 처단하기 위해 정보부원이 되었다고 자랑했다.

그 뒤 구동독에서 오랜 기간 정치범으로 감금되었다가 나온 한 분이, 자기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 공산주의를 싫어했고, 자유주의 신봉자였는데, 이런 신념 때문에 반동분자로 몰려 사상범으로 재판을 받고 오랫동안 바우첸(Bautzen)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힌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를 했다. 마지막에 정보부 장교였던 사람이, 인도주의적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결국 망하고 만다는 결론을 말했다. 정치범이었던 사람이 정보부원과 손을 잡고 끌어안으며 같은 생각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다른 한 가지 경험은 매우 감동적인 경우였는데, 국경경비대에서 장교로 근무했던 구동독의 한 청년이 담장을 넘어 서독으로 도망가는 동독인들을 무조건 총을 쏘아 죽이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는 이야기를 자랑삼아 털어놓았다. 사람들이 당신이 그런 장면을 보았다면 정말 같은 동족을 총 쏘아 죽였겠냐고 물었더니, 그는 물론 국법을 어기고 도주한 자에게는 자신도 총을 쏘았겠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다음에 그는 같은 동독 출신의 한 여성이 목숨을 걸고 서독으로 탈출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이 여성은 원래 충실한 구동독의 시민이었는데, 배우가 되려고 연극 학교에 다니는 도중에, 그의 동생이 서독으로 탈출하는 바람에 학교를 퇴학당하고 생산 공장의 노동자로 배치되었다. 화가 나서 그 여자는 구동독에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 탈출할 결심을 했다. 그러나 그때 어머니가 암에 걸려 아파 누워 있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다. 죽음을 앞두고 되자 나이 든 어머니는 서독으로 도망간 아들을 한 번만 보고 죽게 해달라고 호네킨(Honecker) 수상에게 탄원서를 보냈으나 결국 답장을 못 받고 마지막 위로도 못 받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여성은 지난 이야기를 그 장교를 바로 보지도 못한 채 눈물을 펴펴 쏟아냈다. 이야기를 듣던 참석자들이 모두 눈시울을 적시며 여인의 슬픈 사연을 경청했다. 마지막 대화 시간에 이 장교는 이제까지 동독이 가장 인도주의 국가인줄 알았던 믿음이 그만 이 대화를 통해 깨지고 말았다고 고백했다.

【 분단과 통일 시대의 삶에 대한 반성 】

괴텔리츠 센터에서 진행된 동·서독인의 전기 대화는 분단시대의 편견과 갈등을 해소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하기 위한 시도였다.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과 통일 후의 동·서독인들 사이에 벌어진 오류와 편견을 바로잡고, 새로이 생긴 갈등을 치유하는 데도 커다란 의미와 역할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통일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동독을 방문해 보면 공산 치하의 모습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도로, 건물, 교통수단, 주민들의 옷차림이나 도시 풍경이 모두 새롭게 변해서 여기가 서독인지 동독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만큼 서독에서 동독의 환경개선과 발전을 위해 많은 투자를 했고, 동독의 경제 산업 시설이 크게 개선되고 현대화되었다. 어떤 도시나 공장 건물들은 서독보다도 훨씬 좋은 첨단기술과 방법으로 개조되어 더욱 선진화되어 보였다. 동독이라는 국가는 소멸했지만, 동독인들은 독일 국민이 되어, 서독인들과 동등한 대접을 받

통일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날 동독을 방문해 보면 공산 치하의 모습들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도로, 건물, 교통수단, 주민들의 옷차림이나 도시 풍경이 모두 새롭게 변해서 여기가 서독인지 동독인지 구별조차 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론조사를 하면 동독 주민의 대다수가 자기들은 이등 국민이고, 서독인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대답할까? 가끔 구동독 시절을 그리워하는 말과 표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때가 좋았으며 공산주의 동독을 그리워한다.

으며 복지국가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연금 저축을 하지 않았던 구동독 인들도 65세가 된 이후 서독인과 똑같은 연금을 받아 생활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동독인들에 대한 차별이 없다.

그런데 왜 아직도 여론조사를 하면 동독 주민의 대다수가 자기들은 이등 국민이고, 서독인에 대한 열등감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대답할까? 가끔 구동독 시절을 그리워하는 말과 표현들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상류층에 있었던 사람일수록 그때가 좋았으며 공산주의 동독을 그리워한다. 노스텔지어를 바꾸어 오스텔지어(동독 시대에 대한 그리움)라는 말도 생겨났다. 이런 현상은 정치적인 상황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동독의 몇몇 주에서는 구동독의 사회주의 정당(PDS)들이 득세하며, 원내 세력을 넓혀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동독인들의 실업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제상황이 미래의 독일 정치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필자가 2012년 10월 참관했던 「동서포럼」의 전기 대화 모임에는 세 사람의 동독인이 참가해 자기들의 과거와 오늘의 삶을 이야기했다. 주 최기관의 부탁으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70세의 은퇴한 엔지니어 A씨는 45년 분단시기부터 1970년 동방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 어두웠던 공산 독재 시기에 살았던 이야기를 했고, 생상품 판매소에서 영업 직원으로 일하며 남편과 아들을 돌본 60세의 여성 B씨는 1970년 동방정책으로 밝아진 동서 화해 시대부터 1990년 통일되기까지의 자기의 삶을, 56세의 여성으로 연극배우였으며, 라이프치히 월요기도회(니콜라이 교회)에도 참가했고, 동독의 민주화 운동에도 깊이 관여했던 C씨는 1990년 통일 시기부터 2012년 현재까지 자기의 삶을 이야기했다.

서독 측 참가자 세 분도 이렇게 연령과 직업이 달랐고 분단 시대, 화해 교류 시대, 통일 시대로 나누어 자기들의 삶과 경험담들을 이야기했다. 필자도 남북한의 분단과 전쟁, 냉전 시대 반공 치하에서 살아온 경험을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다. 남북한의 대결과 독재 탄압정치를 들은 독일인들은 동·서독 분단 시대보다 훨씬 열악한 현실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며 놀라워했다. 동·서독인 여섯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다 기록할 수도, 기억할 수도 없었지만, 대화의 과정에서 모든 참가자는 열심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며, 배운 것도 느낀 것도 많은 듯 보였다. 같은 공산당 독재 시대 구동독에 살았으면서도 혐오나 억압 속에 지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시절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변호하는 사람도 있었다.

오랜 역사와 문화 전통을 가진 독일인들이 2차 대전 후 어떻게 소련 공산당의 독재와 탄압을 동독에서 견딜 수 있었을까 의문이었는데, 동독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 더 이해가 되었다. 무엇보다 2차 대전의 참혹한 파괴와 독일의 패망, 나치 정권하의 무자비한 탄압과 독재를 체험했기 때문에 소련 점령군 치하에서 공산주의 독재체제는 쉽게

건설될 수 있었다. 전쟁 말기 1945년 드레스덴의 폭격은 너무 끔찍했고 가족들이 타죽는 모습을 보며 도망친 사람들의 증언은 마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의 경험담 같았다. 깡그리 파괴된 잿더미 위에서, 굶주림과 헐벗음 속에서 맨주먹으로 소련군의 지휘·감독 하에 건설작업이 추진될 때 인권이며 민주주의는 논할 계제가 못 되었다.

여기에 비해 점령국 소련은 나치 독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민주국가를 세우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운 은인이었다. 곧 러시아 문화가 유입되어 유행했고, 청소년들은 러시아어를 배워 소련에 유학 가는 것이 꿈이었다. 11월에는 러시아 혁명 기념으로 큰 축제가 벌어졌고 러시아 예술 인형, 장난감, 풍습들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다. 도시마다 곳곳에 ‘독일-소련 친선회(Deutsche-Sowjetische Freundschaft)’가 조직되었고, 여기서는 한편으로 나치독재를 규탄하며 나치즘에서의 해방을 부르짖으면서, 다른 편에서는 소련의 10월 혁명을 찬양하는 운동을 했다.

나치독재에 길들여진 동독 주민들은 소련 공산독재에 쉽게 적응했다. 어차피 전쟁 후 폐허 속에서 목숨만 건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선전에 쉽게 동화되었다. 빵을 얻기 위해서는 나치 독재 시절 대자본과 용커 대지주들의 착취와 탄압을 제거하고, 그 잔재 세력을 숙청해야 한다는 동독 울부리흐트 정권의 선전 공세가 주효했다. 토지와 재산의 몰수는 필수적이었고, 무산자, 노동자 농민들은 토지 배급과 일자리 제공에 환호성을 보냈다.

반동분자의 색출과 서독으로 탈출한 가족들의 감시를 위해 정보부의 감시와 국경 경비대의 도망자 발포는 당연한 것이었다. 언론 통제, 사상 검증, 반동분자 고발 색출, 정치범 수용소로 공포 분위기와 불신 풍조를 조장한 것은 나치 시대와 비슷했다. 서독의 라디오 TV를 본 사람을 색출, 고발했고, 아파트마다 전화 한 대를 두 집에서 나누어 쓰게 만들며, 외부 통화까지 통제했다. 한 집에서 전화를 쓸 때는 다른 집에서 못 쓰니까 자연스럽게 통화 시간과 횟수가 알려지게 되고 도청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런 체제와 문화에 적응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별 불만과 불편이 없었던 것 같다. 심리학자 롤로마이의 말대로 사람은 오래 갇히면 감옥에서도 적응하며 잘 산다는 것이다. 직업과 주택이 있고, 무료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은 대부분의 동독 주민들은 별 불평 없이 살아갔다. 여성들에게도 평등한 직장이 주어졌고, 육아시설이나 모자보호정책도 서독에 못지않았다. 종교의 자유는 제한되었지만, 사회주의 체제에 적응한 기독교 교회와 목사들은 유지될 수 있었다.

이런 동독 주민 일반에게 독일 통일 후의 급변한 상황은 건디기 어려운 문제였다. 많은 사람이 직장폐쇄를 당해 실업자가 되었고, 전업은 쉽지 않았다. 배운 것이 달라 서독의 시스템에 적응하려면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교육과 방법, 기술을 배워야만 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대한

반동분자의 색출과 서독으로 탈출한 가족들의 감시를 위해 정보부의 감시와 국경 경비대의 도망자 발포는 당연한 것이었다. 언론 통제, 사상검증, 반동분자 고발 색출, 정치범 수용소로 공포 분위기와 불신 풍조를 조장한 것은 나치 시대와 비슷했다.

강의나 저술 연구로 먹고살던 교수, 교사, 학자들 수 천 수 만 명은 하루 아침에 육체노동자가 되던가, 지식인 대열에서 탈락하게 되었다. 서독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 관청과 회사, 학교, 병원을 점령하고 새 체제로 운영해가니, 동독인들은 그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 이등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다.

동독 공산주의 체제하에서는 은행이란 것이 없었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통일 후 갑자기 은행, 융자, 보험, 투자 등 자본주의 경제구조와 기구들이 생기니 도무지 잘 모르겠고 따라가기 힘들었다는 게 동독인들의 불평이다. 외국어도 러시아 말이면 충분했는데, 이제 영어나 불어를 다시 배워야 한다니 나이 든 사람에게는 큰 부담이요 고통이다. 무엇보다 학교 제도가 달라져서 교사도 학생도 적응하기 어려웠다. 매우 권위주의적 학습방법이나 교실 분위기에 익숙해 있던 동독인들이 새로운 학교에서 참여적이며 토론식의 학습 방법을 따라가는데는 교사도 학생도 힘들었다.

만 이틀 동안 많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필자가 느낀 점은, 독일에서처럼 평화적으로 순조롭게 통일을 이룬 나라가 없는데, 그럼에도 분단 시대의 이질적 사회 체제와 생활방식을 통일 후 너무 급격하게 변화시켜 많은 문제와 어려움, 모순들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동독의 토지나 재산을 분단 이전의 서독인 소유자에게 돌려준 자본주의 방식은 정당치 못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보상을 해주더라도 금전이나 다른 방식으로 해야 했고 동독인이 소유하고 사용하던 토지나 재산을 강제로 돌려주게 한 정책은 점령군의 횡포였다는 것이다.

정치적 통일은 급격히 되었더라도 동·서독의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더욱 원만하게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더라면 동독인의 삶과 적응 과정도 덜 고통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여운이 가시지 않았다.

발행처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한국 사무소

편집인 크리스토프 풀만, 박상희

편집위원 김영희 신진욱 안두순 안석교 안인경 이삼열 정범구 최연혜 (가나다 순)

주소 110-74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운니동 삼환빌딩) 1101호

Tel (02)745-2648/9 / Fax (02)745-6684 / e-mail info@fes-korea.org

<http://www.fes-korea.org>

FES Information Series는 유럽 통합 과정과 독일의 정치 체제 및 발전을 중심으로 독일과 유럽의 다양한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해당 주제의 다양성과 상호 관련성을 부각시키고,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목적으로 발간한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특정 정치 노선을 지지하지 않으며, 개별 주제들은 독일이나 유럽의 발전 추세를 관찰하고 평가할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집필한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를 개인 의견이며,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FES Information Series는 부정기 간행물로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홈페이지(<http://www.fes-korea.org>)에서 전문을 내려 받을 수 있다.

Copyright 1998-2013 © by Friedrich-Ebert-Stiftung, Korea Office

Commercial use of all media published by the Friedrich-Ebert-Stiftung (FES) is not permitted without the written consent of the FES.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FES)이 발간한 모든 출판물은 FES의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